

# 전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 및 성별의 조절효과-

## The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College Student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Moderating Effect of Sex-

김정인\*, 가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Jeong In Kim(jeongin@cau.ac.kr)\*, Hye Young Ga(hy1024@cau.ac.kr)\*\*

#### 요약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전문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련성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전문대에 재학중인 학생 24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20부 가운데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1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독립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창업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가정신이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강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심리적독립과 기업가정신,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성별차이가 없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부모의 창업경험 및 학력 등의 영향이 거의 없이 높은 심리적 독립 중 높은 자신신뢰 등 적극적 창업동기를 가진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잠재적 창업능력과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창업의도의 선행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 중심어 : | 전문대학생 | 심리적독립 | 창업의도 | 기업가정신 |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refore, In June 2018. A total of 214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20 collected sampl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psychological independence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entrepreneurship, but it cannot make a direct impa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ly, It is confirmed that the entrepreneu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ach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ly, it is confirmed that entrepreneurship has a fully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ly, It i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entrepreneurship among male students, the stronger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there is no sexual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ntrepreneurship,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is pap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create a preceding factor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like psychological independence.

■ keyword : | College Student | Psychological Independence |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ship |

## I. 서론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현실화하는 방안인 창업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창업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청이 발표한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규 창업자는 128만 5000명으로 2016년의 122만 7000명에 비해 4.7% 증가했다[1]. 대학생들은 이런 창업자 증가세에 크게 기여해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결과에서도 2017년 학생 창업기업 수는 1천154개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2]. 이에 많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전담 인력을 늘렸고, 창업지원금 역시 증가시켰다고 언론보도를 내놨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해있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볼 때 이제는 창업이 특수한 상황 또는 자질과 관련된 사람들만 하는 경력 및 진로가 아니라 창업을 취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산업 및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진로 및 창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학습하는 것을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역량이라고 보고 초중고를 거쳐 창업교육을 위해 국가적 전략 및 실행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 기존 창업교육만으로 창업을 실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우수한 인재의 창업 도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타개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96년,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한국을 기업이 정신이 가장 활성화 된 국가로 꼽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역동성과 활력

은 찾아볼 수 없고 창업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었다. 2012년 OECD 보고서에서도 창업을 좋은 기회로 보는 한국인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창업과 도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활력을 잃고 있다[3]. 세계적인 연구기관(맥스플랑크연구소, IMF 등)들은 국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국가들도 청년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4],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5], 벤처·창업 붐 확산[6] 등 3차례의 대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가정신교육 및 창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의 변화로 인해 내부적, 외부적 혼란을 경험한다[7]. 대학생들은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 및 학업문제,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8], 자아정체성 확립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같은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과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짧은 대학생활 후에는 바로 취업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진로결정에 대한 부담감은 일반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9].

대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하고 싶으면서도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정서적 불균형 속에서 자기에 대한 반복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서 방향과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10]. 또한 학업 및 취업과 같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확립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같은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11].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성인 진입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시기로 인식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계획 등을 세우는 시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12]. 이처럼 한국의 성인 진입기에는 심리적·물리적·경제적으로 가족과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인기의 독

립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13].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은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11]. 또한 심리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14][15].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인구통계적인 특성인 나이, 성별, 경력 등과 심리적 특성인 개인의 태도, 위험추구 등을 요인으로 하는 개인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16][17],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인간은 광범위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및 기술적 요인들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성격특성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적인 배경과 현재의 삶 등 광범위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제도적 환경은 기업가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리적 독립이 새로운 창업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데 실질적으로 유효한 지와 기업가정신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에게 있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매개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창업가의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나 능력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창업관련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 중 하나이다. 창업가들은 비창업가와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20]. 따라서 창업에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창업가 개인 특성을 들 수 있다. 창업기업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된다[21].

창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창업을 선택하는 개인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22][23].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위험 선호성향이나 통계의 위치, 성취감, 불확실성 등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외 자율성과 역할모델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20][24].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특성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창업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심리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H1, H2)

심리적 독립은 청년기의 주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이다[25]. 그래서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가족으로부터의 점진적 독립과 스스로 친구를 선택하는 것들을 청년기에 완수해야 할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26].

건강한 적응을 향한 개인의 열망은 결정적으로 그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나서야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청년기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7].

일반적으로 심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결속적이고 의존적인 유대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관계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 개별적인 자유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내적인 과정이다[28].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할 주요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대학생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발달 과업에 당면해 있

다[25]. 대학생 시기의 심리적 독립은 보다 심층적인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 시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5].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통찰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여 이윤을 극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들 수 있다[29].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서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29].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긍정적 영향관계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창업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심리적 독립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심리적 독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H3)

국내연구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자세로서 분석결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0]. 대학생 현장 체험학습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자신감으로 분류하였고[31], 청년 기업가정신과 창업행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분류하고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의 개인적 특성을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으로 분류하고 분석결과, 위험 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은 창업의지와 정(+)의 관계라고 보고하였다[33].

그 밖에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은 정량 및 정성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34][35]. 특히 창업기업처럼 작고 젊은 기업인 경우 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36][37]. Rauch et al.(2009)은 51개의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단일차원의 창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8].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및 추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H4)

기업가정신은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혁신성,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도전 의식으로 사업기회를 추구한다는 위험감수성, 경쟁자들보다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주도권을 형성한다는 진취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39].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40], 변혁적 리더십과 정성적 성과와의 관계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 역할을 확인해 주고 있다[41].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기업가정신은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4. 성별의 조절효과(H5, H6, H7)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착은 남성보다 특히 여성에게 심리적 안녕[42], 대학생활 적용[43]과 진로 발달[44]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창업가적 자기효능과 낮은 수준의 창업가적 열의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여성들은 창업가로 성공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수준 또한 낮다는 GEM(2007)의 조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창업에 대한 효능감과 열의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로 인하여 창업가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5. 성별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 가설 6. 성별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 가설 7. 성별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여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정신은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며, 성별에 따라 각각의 경로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론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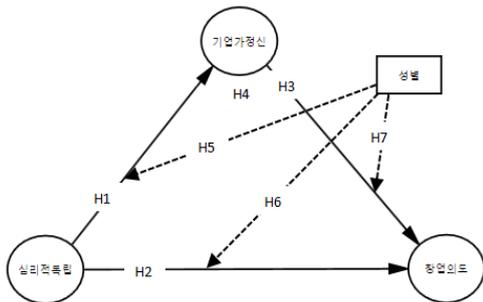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되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심리적 독립은 ‘부모의 지지와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성향’이라 정의하고, 문정희(2017)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부모지지, 자율결정, 자기신뢰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11]. 부모지지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줌’ 등 6개 문항, 자율결정은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 의견을 먼저 구함’ 등 역문항 6개 문항, 자기신뢰는 ‘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음’ 등 6개 문항 등 총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인 성향이나 태도’라고 정의하고, Covin & Slevin(1991), Miller(1983)가 사용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45][46]. 혁신성은 ‘평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함’ 등 3개 문항, 진취성은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고 자신있게 행동함’, 위험감수성은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함’ 등 3개 문항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창업의도는 단일요인으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창업하겠다는 의지의 정도’라 정의하고, Fitzsimmons & Douglas(2011)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 중에 있음’ 등 총 5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47].

측정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4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20부 가운데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1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도구

잠재 변수	조작적정의	관측 변수	측정문항	선행연구
심리적 독립	부모의 지지와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성향	부모 지지	①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줌	문정희(2017)
			②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줌	
			③부모님이 나의 일을 지켜봐 줌	
			④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	
			⑤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부모님께 솔직히 말함	
			⑥부모님과 떨어져 살더라도 유대감을 느낌	
		자율 결정	①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 의견을 먼저 구함	
			②부모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함	
			③내 생각보다는 부모님 생각이나 방식을 따름	
			④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부터 찾음	
			⑤부모님의 인정여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함	
			⑥내가 하고 싶은 일도 부모님 눈치를 보고 포기함	
자기 신뢰	①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음			
	②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음			
	③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음			
	④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			
	⑤현재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			
	⑥스스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함			
기업가정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인 성향이나 태도	혁신성	①평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함	Miller(1989) Covin & Slevin (1991)
			②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함	
			③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진취성	①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고 자신있게 행동함	
			②실패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함	
			③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려고 노력함	
		위험 감수성	①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함	
			②리스크가 있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으면 추진함	
			③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함	
창업 의도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창업하겠다는 의지의 정도	창업 의도	①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 중에 있음	Fitzsimmons & Douglas(2011)
			②창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음	
			③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④향후 2년 이내에 창업할 생각이 있음	
			⑤미래에 언제가는 창업할 생각이 있음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연구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통해 연구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 3회전 방법(Varimax Method)을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에서는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개념신뢰도(C.R.) 값을 구하여 집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chi^2$ , p값, RMR, GFI, AGFI, NFI, RFI, IFI, TLI, CFI, RMSEA 등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도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구조 방정식모형(SEM)을 구축하여 AMOS 통계패키지를 통해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통계패키지의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성별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카이스퀘어 차이를 검정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판단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

표 2. 심리적독립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관측변수	설문문항	부모지지	자율결정	자기신뢰
부모지지	②부모님이 나의 결정을 존중해줌	.874	.178	.054
	①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줌	.852	.045	.008
	③부모님이 나의 일을 지켜봐 줌	.842	.299	.024
	④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	.838	.115	-.007
	⑤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부모님께 솔직히 말함	.696	.262	-.083
	⑥부모님과 떨어져 살더라도 유대감을 느낌	.583	.269	-.178
자율결정	④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부터 찾음	.051	.846	.024
	⑥부모님의 인정어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함	.131	.841	.091
	③내 생각보다는 부모님 생각이나 방식을 따름	.181	.838	.118
	②부모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함	.258	.802	.030
	①내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 의견을 먼저 구함	.188	.797	-.034
	⑥내가 하고 싶은 일도 부모님 눈치를 보고 포기함	.334	.689	.090
자기신뢰	⑤현재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	-.084	.076	.827
	④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	-.151	.027	.777
	⑥스스로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함	.257	.143	.746
	②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믿음이 있음	-.082	.030	.741
	③나만의 삶의 목표가 있음	.064	.045	.612
	①진로에 대한 나만의 계획이 있음	-.442	-.131	.525
Eigen Value		4.294	4.202	3.119
% of Variance		23.853	23.343	17.327
Cumulative %		23.853	47.196	64.523
Cronbach's $\alpha$		.891	.788	.906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880/0.000( $\chi^2=2222.202$ , df=153)		

학생이 150명(70.1%), 여학생 64명(29.9%)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 78명(36.4%), 2학년 79명(36.9%)으로 저학년이 7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학년 47명(22.0%), 4학년 10명(4.7%)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135명(63.1%)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인문사회계열 51명(23.8%), 자연계열 11명(5.2%), 기타 17명(7.9%)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31명(61.2%)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학생은 83명(38.8%)이었다. 현장실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72명(33.6%)로 현장실습경험이 없는 학생 142명(66.4%) 보다 적었다.

##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 2.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정

본 논문의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독립 18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탈락된 문항없이 부모지지, 자율결정, 자기신뢰 등 3개의 하위요인으

로 추출되었다. 전체설명력은 64.523%이며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성 지수는 각각 0.891, 0.788, 0.905 등으로서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 9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3]와 같이 혁신성 3번 문항, 위험감수성 1번 문항, 진취성 2번 문항이 탈락하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78.774%로 높은 수준이며,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성 지수도 각각 0.812, 0.703, 0.634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창업의도 5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탈락된 문항없이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7.950%이며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성 지수는 0.875로서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에 대한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KMO는 모두 0.5 이상, Bartlett 구형성 검증값도  $p < 0.001$  이하로 나타나 표집 및 요인분석 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기업가정신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관측변수	설문문항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①평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함	.852	.162	.286
	②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함	.846	.214	.266
위험감수성	②리스크가 있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으면 추진함	.061	.858	.258
	③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함	.321	.813	.088
진취성	①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고 자신있게 행동함	.262	.096	.851
	③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려고 노력함	.279	.320	.707
Eigen Value		1,696	1,581	1,450
% of Variance		28,260	26,343	24,171
Cumulative %		28,260	54,603	78,774
Cronbach's $\alpha$		.812	.703	.634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813/0,000( $\chi^2=426,026$ , $df=15$ )		

표 4. 창업의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관측변수	설문문항	창업의도
창업의도	③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886
	①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 중에 있음	.860
	②창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음	.856
	④향후 2년 이내에 창업할 생각이 있음	.806
	⑤미래에 언젠가는 창업할 생각이 있음	.701
Eigen Value		3,398
% of Variance		67,950
Cumulative %		67,950
Cronbach's $\alpha$		.875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823/0,000( $\chi^2=607,984$ , $df=10$ )

2.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과 구성개념타당성 검정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최대 우도법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활용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 부하량을 측정할 수 있고,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48].

구성개념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평균 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C.R.)가 각각 0.5와 0.7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각 구성개념의 상관계수가 AVE제곱근보다 적어야 한다[49].

집중타당성 검정결과, [표 5]와 같이 기업가정신, 심리적독립, 창업의도의 구성개념은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0.683과 0.864, 심리적독립 0.526과 0.686, 창업의도 0.545와 0.854 로 각각 나타났으며 심리적독립의 개념신뢰도만 0.686으로 다소 못미치지만 검정기준인 0.7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창업의도는 설문문항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AMOS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방법으로 자주 활용된다.

판별타당성 검정결과, [표 6]과 같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이 각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또한 충족되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 상관계수가 0.359로 가장 높고, 심리적독립의 AVE 제곱근이 0.725로 가장 낮으므로 이 두 수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심리적독립의 AVE 제곱근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집중타당성 검증결과

변수	측정 문항	비표준화 계수	S.E.	C.R.	오인 부하량	오차분산	AVE	개념 신뢰도
기업가정신	혁신성	1			0,76	0,162	.683	.864
	진취성	0,887	0,097	9,102	0,789	0,249		
	위험감수성	0,727	0,094	7,715	0,603	0,316		
심리적독립	자율결정	0,23	0,172	1,34	0,093	0,005	.526	.686
	자기신뢰	2,091	0,286	7,304	0,995	0,651		
	부모지지	1			0,45	0,428		
창업의도	창업의도2	1,022	0,076	13,472	0,776	0,26	.545	.854
	창업의도3	1,044	0,062	16,735	0,9	0,511		
	창업의도4	0,92	0,074	12,49	0,738	0,19		
	창업의도1	1			0,86	0,525		
	창업의도5	0,808	0,092	8,762	0,565	1,028		

표 6.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변수	1	2	3
기업가정신	<b>0,826</b>		
심리적독립	.232**	<b>0,725</b>	
창업의도	.359**	-.046	<b>0,738</b>

2.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위의 [표 6]과 같다. 연구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적합도지수		기준치	측정치
절대 적합 지수	CMIN(d.f., p)	p>.05	115,801(42, p=.000)
	RMR	.05 이하 권장	.063
	GFI	.9 이상 권장	.912
	AGFI	.9 이상 권장	.861
	RMSEA	.1이하 보통 .08이하 양호 .05이하 좋음	.091
증분 적합 지수	NFI	.9 이상 권장	.880
	IFI	.9 이상 권장	.920
	TLI	.9 이상 권장	.894
	CFI	.9 이상 권장	.919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7]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chi^2$ 과 GFI, AGFI, RMSEA 등은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 적합지수이며 NFI, IFI, TLI, CFI 등은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이다.

본 연구모형은  $\chi^2$ 을 제외하고 권장되고 있는 적합도 기준에 대부분 근접하고 있으므로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가설검정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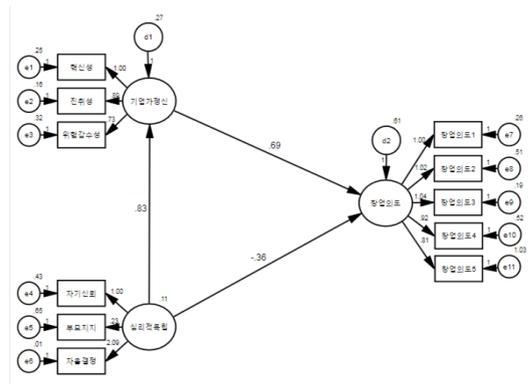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결과

4.1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H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827와 4,679로서 유의수준 p<0,01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25].

4.2 심리적 독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H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독립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기각하고 있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 값은 각각 -0.036과 -1.663으로서 유의수준  $p < 0.05$ 에서 기각되었다. 대학생 등 청소년기의 심리적 독립은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고 다양한 교육과 간접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창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4.3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H3)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 값은 0.691과 4.825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30-33].

4.4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H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이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가설 4를 지지하고 있다. 완전매개과 부분매개 여부에 대해서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검증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부분 및 완전매개여부를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간접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성도 0.00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이 창업의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등 창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심리적독립,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간 인과관계 검증

구분	경로	방향	경로계수	S.E.	C.R.	p값	검증
H1	심리적독립→기업가정신	+	.827	.177	4.679	***	채택
H2	심리적독립→창업의도	+	-.36	.217	-1.663	.096	기각
H3	기업가정신→창업의도	+	.691	.143	4.825	***	채택

표 9.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구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판단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H4	심리적독립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138	.467* .469 = .219	.081	완전매개	.003***	채택

표 10.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구분	경로	남학생				여학생				판단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H5	심리적독립→기업가정신	.852	.254	3.354	***	.858	0.28	3.063	.002	기각
		자유모형(CMIN=171.995, d.f.=82), 제약모형(CIN=171.995, d.f.=83)								
H6	심리적독립→창업의도	-.614	.292	-2.107	.035	.082	.261	.313	.754	기각
		자유모형(CMIN=171.995, d.f.=82), 제약모형(CMIN=179.007, d.f.=85)								
H7	기업가정신→창업의도	1.023	.205	4.983	***	.151	.192	.787	0.431	채택
		자유모형(CMIN=171.995, d.f.=82), 제약모형(CMIN=185.415, d.f.=85)								

4.5 성별의 조절효과(H5, H6, H7)

본 연구와 같이 AMOS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집단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자유모형을 비교하여 카이스퀘어의 차이가 1 자유도당 3.84 이상인지에 따라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가설 5, 가설 6, 가설 7을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7은 지지되었으나, 심리적 독립과 기업가정신,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설 5와 가설 6은 기각되었다.

[표 10]과 같이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비교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가설 7의 경우 자유도 1당 카이스퀘어가 4.473 만큼 감소하여 자유도의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카이스퀘어 감소폭이 훨씬 크므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설 7에서 남학생의 경우, 경로계수와 C.R 값이 각각 1.023과 4.983으로서  $p < 0.01$  수준에서 채택되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경로계수와 C.R 값이 0.151과 0.787로서  $p < 0.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창업의도에 미치는 기업가정신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점이 지지되었다. 반면 가설 5와 가설 6의 경우에는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심리적독립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없으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 여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기업가정신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기업가정신에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20부 가운데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1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독립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창업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지지, 자율적인 의사결정,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독립은 진학과 취업을 이유로 부모의 걸을 떠나는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학생들은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진로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학생 등 청소년기의 심리적 독립은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고 다양한 교육과 간접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에 해당하므로 심리적 독립 추구만으로는 창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확인

해 주고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고, 주도권을 확보해나감으로써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0].

셋째, 기업가정신이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리적 독립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가정신의 매개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강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독립과 기업가정신,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는 성별차이가 없었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와 달리 부모의 창업경험 및 학력 등의 영향이 거의 없이 높은 심리적 독립 중 높은 자신타당성 등 적극적 창업동기를 가진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잠재적인 창업능력과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창업의도의 선행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금 등의 활용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청년창업 지원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심리적 독립을 제고시키고 기업가정신의 발현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의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대 학생들의 성별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강좌의 수준 및 내용을 달리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남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여학생의 창업의도를 독려하여 적극적인 창업의도를 가진 학생의 창업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표본 선정과 실증분석 과정 등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채집이 가능하도록 연구설계 단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응답자 및 측정방법상에서 동일방법 편의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방법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추적조사 및 종단연구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변수의 하위요인 간 관계 파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각 연구변수의 하위요인별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엄밀한 방법론으로 알려진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기업가정신, 심리적 독립과 창업의도 간의 연구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청년 창업활성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 [2] 교육부,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 [3] 김대호,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4] 중소기업청,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2010.
- [5]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2013.
- [6] 중소기업청, *벤처·창업 불 확산 계획*, 2015.
- [7] 조계화, 이현지,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우울과 만족도, 죽음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Vol.38, No.2, pp.229-237, 2008.

- [8] 이은정,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기개념 명확성 및 정서표현 갈등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9] 윤미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행동과 개인 및 조직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10] 김윤희, 이정숙,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9, No.4, pp.429-445, 2000.
- [11] 문정희,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2]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2011.
- [13] 강주현,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14] M. Lucas,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4, No.2, pp.123-132, 1997.
- [15] 구경호, 김석우, “가족건강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Vol.15, No.5, pp.2019-2033, 2014.
- [16] E. Gurel, L. Altinay, and R. Daniele, “Tourism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7, No.3, pp.646-669, 2010.
- [17] J. W. Le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search of Small-Medium Enterprises*, Vol.22, No.1, pp.121-124, 2000.
- [18] F. Linan and Y. W. Chen,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3, pp.593-617, 2009.
- [19] Wennekers & R. Thurik, “Linking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3, No.1, pp.27-55, 1999.
- [20] S. L. Mueller and A. S. Thomas, “A Case for Comparative Entrepreneurship: Assessing the Relevance of Cul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31, No.2, pp.287-301, 2000.
- [21] L. Herron and R. B. Robinson,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8, No.3, pp.281-294, 1993.
- [22] 이주현, “창업동기와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30, No.1, pp.93-116, 2008.
- [23] 김해룡,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Vol.21, No.6, pp.2393-2420, 2008.
- [24] D. Turker and S. Sonmez Selcuk,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33, No.2, pp.142-159, 2009.
- [25] 임통일, “장애관련요인이 장애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 간 구조분석,” *취업진로연구*, Vol.3, No.1, pp.1-25, 2013.
- [26] J. McKinney, H. Fitzgerald, and E. Strommen, *The adolescent and young adult. Homewood, Developmental psychology*, IL: Dorsey, 1982.
- [27] J. A. Hoffman,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0-178, 1984.
- [28] R. Josselson,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K. Lapsley & F.C. 1988.
- [29] J. Y. Choi and H. J. Jeong, “A Study On Effect

-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KAHRM, Vol.15, No.3, pp.213-230, 2008.
- [30] 윤남수,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Vol.25, No.2, pp.1537-1557, 2012.
- [31] 이유태, “대학생 현장체험학습(새가계운동)이 창업의도와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36, No.1, pp.135-157, 2014.
- [32] 임아름, 김형철, 윤종록,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Vol.9, No.3, pp.80-103, 2014.
- [33] 홍정표,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충남, 2015.
- [34] K. D. Brouters, G. Nakos, and P. Dimitratos, “SM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ternational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Strategic Allianc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9, No.5, pp.1161-1187, 2015.
- [35] 유봉호, “서비스업의 창업가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4, No.3, pp.55-78, 2013.
- [36] G. T. M. Hult, C. C. Snow, and D. Kandemir,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Building Cultural Competitiveness in Different Organizational Types,” *Journal of Management*, Vol.29, No.3, pp.401-426, 2003.
- [37] 김범성,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과정모형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Vol.9, pp.119-152, 2012.
- [38] 김우종, *창업가정신과 전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리터러시와 학습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39] 황상규, “조직 내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경남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15, No.4, pp.345-356, 2013.
- [40] 박성호,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 실패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41] 임진혁, 이장희,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정성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 [42] M. E. Kenny, and G. A. Donaldson,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8, No.4, p.479, 1991.
- [43] F. G. Lopez, V. L. Campbell, and E. C. Watkins,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 -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5, pp.402-409, 1988.
- [44] K. M. O'Brien and R. E. Fassinger, “A Causal mode l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0, pp.456-469, 1993.
- [45] J. G. Covin and D. P. Slevin,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1, pp.7-25, 1991.
- [46] D. Miller,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29, No.7, pp.770-791, 1983.
- [47] J. R. Fitzsimmons and E. J. Douglas, “Interaction Between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i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6, pp.431-440, 2011.

[48] 우종필,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서울, 2015.

[49]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 저 자 소 개

김 정 인(Jeong-In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위스컨신대학, 자원 경제, 국제무역(석사)
- 1994년 2월 : 미네소타대학, 응용경제, 환경경제학(박사)
- 2000년 3월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관심분야> : 기후경제, 기업가정신, CSR 창업

가 혜 영(Hye-Young Ga)

정회원



- 2000년 2월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2013년 2월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창업컨설팅(석사)
- 2015년 9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창업경영전공(박사수료)

<관심분야> : 기업가정신, 창업금융, 창업컨설팅